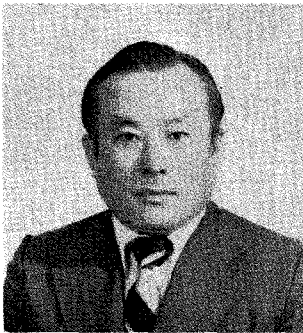


생산성 향상과 소비확대로 축산불황 이겨내자



오 세 정

건국대 축산대 교수
본회 자문위원

불황이라고 하면 생산원가 이하로 생산자가 판매하고 있을때 불황이라고 한다.

이러한 호황과 불황은 길고 짧음에 차이는 있으나 항상 반복되는 것이며, 그 진폭 또한 사육자들의 자세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최근의 불황요인은 소비위축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보며, 소비의 위축은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사회가 불안한것이 큰 원인이라고 본다. 이러한 요인의 해결책은 국내외의 정세와 정부의 시책 및 온 국민의 정신적인 자세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보면 우리의 할일 즉 축산불황을 이겨내고, 타개하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오직 알면서 행동하지않고 실천을 못하고 있을 따름이다.

비가 온 뒤에는 땅이 다져지고, 홍수가 지나간 뒤에는 수로가 정비되어 안전한 수해대책이 강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전쟁으로 폐허된곳에 새로운 문화도시가 건설되고 과학문명이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모두가 사람들의 각성에 의한 의욕과 창조의 결과라고 본다.

당면한 불황 타개책은

1. 적정생산과 출하조정을 하여야한다.

과거를 회고해 보면 입추를 중지하자고 합의해놓고 뒤어가서는 이를 지키지않고 배신행위를 하는 자가 있었고, 또한 누가 살아남느냐? 하며 과도한 경쟁을 서슴치 않은 자가 있다. 이 모두가 우매한 행위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

관련인 모두가 다같이 협조하여서

① 입란 또는 입추를 조금씩 감축하든가 일시 중단하여야 하며

② 능력이 저하된 노계는 과감히 도태처분함으로써 생산부담을 줄이고 손해를 적게 보도록 하여야 하며

③ 불황후에 호황시를 대비한 생산증대와 산란기간 연장, 특란율 제고, 육성비 절감, 노계 값이 비쌀때 판매함으로써 유리한 경영을 가져올 수가 있는 강제환우를 실시해 일시적인 생

산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④ 출하를 조정함으로써 유통상인에게 저차세에 의한 판매가격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장기간의 저장방법의 개발 가공, 냉동 등으로 일시적인 과잉생산 또는 계절편중 소비에 대비한 수급조절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적정량의 생산과 출하조절은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 지역별로 먼저 뭉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하며 이 뭉쳐진 힘을 하나로 모아 단합하여 일사불란하게 어려움을 헤쳐나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외국 도입사료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양계산업은 자원이 풍부한 외국에 비해 생산비면에서 상당히 취약하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경영개선을 통한 능력의 극대화로운 길을 절감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다.

① 단위당 사육수수를 늘려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단위당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1인당 관리능력도 더욱 향상시켜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사구조의 변경, 환기, 계분제거시설, 자동화된 기계시설의 도입 등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② 닭 계종별 생리적 특성에 알맞는 효율적인 사양관리의 적용으로 사료를 절감하고, 귀

중한 외화를 들여 도입한 사료곡물의 낭비를 막아야 하며 계절별 기온의 차가 극심한 우리 현실에 비추어 여름철 고온이나 겨울철 혹한기에 적합한 효율성이 높은 계절별 사료의 공급으로 경제적인 사양관리를 해야 한다.

③ 철저한 소독과 예방으로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특히 치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치료에 앞서 발병이 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유리하다.

④ 품질향상 및 경영개선이 필요하다.

생산만 해놓으면 어떤 방법이든 소비가 되던 시기는 이제 지났다. 같은 계란이라도 깨끗하고 위생적인 계란이 소비가 잘 될 것이며 특히 닭고기의 경우는 위생적으로 처리되고 도체율, 정육율이 높아야 함은 물론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색깔, 풍미, 용도별로 적당한 크기, 요리하기에 간편하게 처리된 도계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제는 소비자를 위한 양계산물을 생산, 공급해야만 한다.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탈피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과감히 경영개선을 시도해 불황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한다.

3. 다각적인 소비확대 방안을 모색해 수요의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최근 양계업 뿐만 아니라 축산업이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의 탈피를 위해 각종 종별로 고심하고 있다. 유업계에서는 전락농업자가 한데 모여 우수소비대회를 갖기로 하고, 양돈업자는 양돈인 대회 등 단합의 의지를 모아 소비확대에 부심하고 있다.

이와같이 양계업계에 당면한 문제도 양계인 외의 누가 해주기를 바라기 이전에 각자가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 양계인 몇 사람의 노력보다는 모든 양계인이 합심하여 하나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마음을 모으면 불황을 타개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국 60만 양계인의 마음자세와 행위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조금씩 양보해서 구심점을 찾아야 한다. 남보고 먹으라고 홍보하기에 앞서 60만 농가가 스스로 앞장서서 소비하며, 주위 일가친척과 친구들에게 선물 또는 소비를 촉구 한다면 60만호×3~5집×5명=9백만~1천5백만명이 된다. 계란을 매일 1개씩 먹게 한다면 2개씩 소비하도록 유도한다면 일시적인 계란체계화는 없어지고 값도 상승될 것이다. 닭도 한집에 한마리씩 소비시키면 180~300만수가 하루에 소비된다.

이와같이 우리가 생산한 우리의 계란과 닭을 우리 스스로가 소비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큰 돈을 들여 신문, TV 등의 힘을 빌지않더라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전 양계인의 능동적 참여에 의한 강력한 생산자 조직의 활성화와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우리의 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자립자존의 의지를 세우고 나아가 단합된 힘을 구심점으로 삼아 안정된 양계산업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축산정책 차원에서도 농민을 위한 능동적인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최근 계속된 불황으로 산물가격이 생산비를 밑돌아 어려움으로 도산하여 업을 떠나거나 입추중단 등 일시적인 생산부족으로 가격상승 기미가 있으면 민감한

반응을 보여 수입운운 하며 엄포를 놓는 등 정부의 물가안정정책(농산물가격 억제책)으로 사기는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양축가들을 위한 제도의 정립이 시급하다. 아울러 축산물의 수요증대에 따라 국민의 주식차원에서 정부기구의 축산청의 신설, 양계과가 생길 수 있도록 정책변화가 요구된다.

4.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양계인의 자세

과거 양계업이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다소 무계획적이고 모험적인 투자가 오히려 행운을 안겨다 주기도 하였고 주먹구구식 경영도 부를 안겨다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는 구태의연한 경영에서 탈피하여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경제적인 양계업을 해 나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양계인 스스로 적정수수의 생산, 수급의 조절로 출하시 가격에 따른 불이익을 배제하고 정확한 지식에 의한 과학적인 축산업 연구로 낭비의 요소를 줄이고 생산비를 더욱 절감시키는 경영개선을 해야한다.

연구노력하는 양계인만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계화 자동화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과감한 개선의지와 실천이 있을 뿐이다. 양계인은 공동체의식을 갖고 스스로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권익을 확보해야 한다.

개인의 힘 보다는 조직의 힘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며 동종업자끼리 더욱 자주 모여 마음의 문을 활짝열고 토론하며 서로를 자극하고 시정해 나가며, 여기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여시켜 폭넓고 깊게 발전되고 産學協同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 궁극적으로는 양계인의 복리증진을 성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양계인 모두가 하나되어 실천의지를 굳게 갖고 의욕과 창의적으로 행동하는 가운데 축산불황은 우리 주변에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